

〈書 評〉

北歐르네상스와 宗教改革, 洪致模 著

(성광문화사, 1984년, 255면)

評者는 本書를 읽고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의 관계에 대하여 소상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 책은 7年前「宗教改革史」에 뒤이어 간행된 洪致模 教授의 두번째의 저술이다. 宗教改革만큼 학자들의 激論을 불러일으킨 대목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것은 개혁운동의 範圍가 넓었을 뿐 아니라 그 영향의 深度 또한 깊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宗教改革의 研究는 Illyricus와 Baronius 등 新舊 敎史家들에 의해 논의가 시작되다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世俗의 解釋의 양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후 개혁운동의 爭點은 루터 이외에 즈빙그리나 칼빈, 크랜머, 녹스 등으로 점화되어 나아갔으며 再洗禮派의 宗教的 急進思想, 宗教와 文化의 關係, 修道院 敎團들의 經濟的 理解問題 등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개혁운동은 더 나아가서 中世敎會와의 關聯, 新舊敎의 調和, 宗教改革과 資本主義, 宗教改革과 近代國家形成, 르네상스와 宗教改革의 關係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과 연결되면서 논쟁을 계속하게 되었다. 本書는 이들 이슈 중에서 학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北歐 르네상스와 宗教改革의 關係를 照明한

저술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은 북부 유럽에 전파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단순한 復興運動인가 하는 것이다. 洪致模 教授는 그 동안 수년에 걸쳐 수집한 外國學者들의 자료들과 경우에 따라서는 Albert Hyma 교수와 같은 저명한 학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얻은 지식들을 토대로 본서를 정리하게 된 것이다. 너무도 믿어지지 않으리만치 몇몇 종교 전문가들만이 宗教改革史를 다루고 있던 시절부터 오로지 이 분야에 온 정열을 기울여온 洪教授의 이번 著書는 그의 첫번째 저서(「宗教改革史」)의 基底 위에 세워지는 上層의 研究의 多邊化라는 점에서 자못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本書는 全 3章과 附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內容을 目次에 따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第 1章〈北歐르네상스운동의 起源〉에서는 “Gerard Groote의 思想과 Devotio Moderna運動의 起源”, “Wessel Gansfort의 Biblical Humanism 思想과 Martin Luther”, 및 “Erasmus와 北歐人文主義”가 각각 논술되고 있다. 第 1節(“Gerard Groote의 思想과 Devotio Moderna運動의

起源”)에서 저자는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에 대한 受納說(Reception theory)과 修正說을 소개하고 독일 종교개혁운동의 知的 背景인 Christian Humanism의 前身이라 간주되는 Groote의 사상과 Devotio Moderna(오늘의 헌신)운동을 추적하고 있다. 洪教授는 共同生活兄弟團의 창설자인 Groote의 사상에서 기독교인문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實踐의 神秘主義思想을 통하여 기독교인문주의와 기독교신비주의를 연결시키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p. 12). 第2節(“Wessel Gansfort와 Biblical Humanism 사상과 Martin Luther”)에서 저자는 北歐르네상스의 선구자로 알려진 Wessel Gansfort(1420~89)의 인간과 사상을 살펴봄으로써 北歐르네상스와 종교개혁운동을 內面的으로 연결시켜 준 근거를 규명하고 있다. 洪教授는 Gansfort와 共同生活兄弟團, 그의 생애와 사상, 특히 그와 루터와의 思想的 遭遇를 통하여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基督教古典研究에 어떠한 영향을 던져줌으로써 복구르네상스를 일으켰으며 그것의 土着化 및 루터의 改革運動으로 이어졌는가를 밝히고 있다(p. 47). 第3節(“Erasmus와 北歐人文主義”)에서는 M. Philips女史의 논문과 Renaudet, Hyma 등 최근학자들의 연구업적들을 중심으로 에라스무스 사상에 관하여 서술되고 있다. 즉, 洪教授는 에라스무스와 공동생활형제단과의 관계, 그의 第1次 渡英을 계기로 나타난 思想的 轉換, 에라스무스와 Ficino, Pico 등과의 접촉을 소개함으로써 Philips女史의 주장을 일면 받아들

이면서도 지나치게 에라스무스의 渡英(1499)을 基點으로 人文主義者들(John Colet, Thomas More)과의 접촉으로 中世思想과의 斷絶을 강조하는 해석을 거부하고 있다(p. 47). 이것은 저자가 Hyma 교수의 노선에 서서 에라스무스를 관망하려는 의지로서 매우 적절한 해석으로 간주된다.

第2章 1節(“루터와 共同生活兄弟團”)에서는 루터가 1497~8년 “Nullbrothers”와 교제한 사실에 착안하여 공동생활형제단과의 관계를 최근학자들(Henkell, Post, Landeen, Hyma, Strand, Schwiebert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 논술되고 있다. 특별히 洪教授가 Magdeburg 시절과 관련지어 루터를 바라보려는 것은 루터의 사상을 터득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 간주된다. 그러나 洪教授는 Magdeburg 시절의 루터를 중시하는 한편 共同生活兄弟團의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p. 67). 第2節(“Devotio Moderna에 대한 루터의 태도”)에서는 Rudolf Kekow 교수와 E. Barnikol 교수사이의 논의를 중심으로 Devotio Moderna 운동과 루터와의 관계가 논술되고 있다. 洪教授는 상술한 Hyma, Landeen, Strand 교수들의 형조를 얻어 이 문제를 상론하고 있다. 저자는 루터의 精神的 背景으로 神秘主義, 敬虔主義, 人文主義 등으로 구분하고 15세기 基督教人文主義의 모체가 되는 Devotio Moderna 運動이야말로 루터의 改革運動의 根源이라고 매듭짓고 있다(p. 98). 洪教授는 다시 第3節(“루터와 독일의 人文主義者들”)과 4

節(“독일人文主義運動과 宗教改革”)에서 독일의 종교개혁과 휴머니즘문제를 총괄적으로 논술함으로써 양자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의 의견을 거듭 밝히고 있다. 前者의 논문에서 저자는 세 가지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p. 99). 첫째는 이탈리아人文主義思想의 성격과 독일人文主義思想의 特性, 두번째는 루터와人文主義者들과의 관계, 세번째는 루터와人文主義者들의 共通點과 差異點 등에 관해서이다. 특히 洪教授는 양자 사이의 差異點으로人文主義者들의 지속적인 카톨릭信仰과 教會觀, 改革運動에 대한 그들의消極的 態度, 그들의 舊世代的 保守性 등을 열거하고 있다(p. 107). 洪教授는 결론으로 “人文主義없이 宗教改革은 없다”는 논거를 지지하는 한편 루터가 겪은 영혼의 투쟁과 성경적 원리체현을人文主義者들과 결별하게 된 원인으로 간파하고 있다(p. 110). 後者의 논문에서 저자는 1450년을 전후하여 독일에 영향을 미치게 된 르네상스운동의 전개과정과 독일인문주의운동의 토착화과정 및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의 관계를 재론하고 있다(p. 112). 본논문의 要旨을 소개하던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人文主義運動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 독일人文主義는 독일내에서 定着되면서 浪漫的 國民主義와 宗教的 普遍主義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 두 가지 思想들은 에라스무스에 의해 基督敎人文主義로 출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Christian Humanism은 종교개혁의 前衛的 運動으로 개혁의 길을 터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人文主義者들)의 本來的

意圖는 信仰과 理性的 調和와 均衡에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16세기 휴머니즘운동의 限界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저자에게 휴머니즘운동은 종교개혁 이전에 나타난 하나의 周邊現象으로 성경에 기초를 둔 종교개혁과는 상이한 文化的 復興運動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다(p. 127). 다시한번 저자의 철저한 改革敎會의 입장을 간파할 수 있다 하겠다.

第3章 1節(“켈빈과 르네상스 휴머니즘”)에서는 켈빈과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관계에 대하여 논술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人文主義者로 출발한 켈빈이 神學者가 된 후 휴머니즘에 관해 여하한 태도를 취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洪教授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개념, 켈빈의人文主義敎育, 휴머니즘에 대한 켈빈의 理解 등으로 나누어 그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洪教授는 「세네카의 寬容論」(1532)과 「基督敎綱要」(1536)에 나타난 스토아철학과 新플라톤사상의 영향을 지적하는 한편, 그러한 영향은 그가 古典哲學思想에 본질적으로 동화되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福音의 眞理를 당시대의 지식인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그들의 용어를 구사했을 뿐이라고 켈빈주의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p. 140). 이러한 문제는 쉽게 그치기 어려운 문제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第2節(“켈빈과 Ecumenism”)에서는 1948년 암스텔담에서 열린 世界敎會聯合會(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에 관해 켈빈의 입장과 대비되어

서술되고 있다. 현대교회의 현안으로 되어있는 소위 WCC의 眞意와 成果, 및 病弊에 대해서 논술되고 있다. 洪教授는 켈빈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Ecumenist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를 비추어 WCC를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159). 第3節(“宗教改革은 革命인가?”)에서는 W. Stanford Reid 교수와 Robert M. Kingdon 교수의 주장들을 중심으로 쥬네브개혁운동의 성격이 논술되고 있다. 저자는 “改革”이나 “復興”, “革命” 등과 같은 개념들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쥬네브의 政治構造와 改革內容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1526~59년에 이르는 쥬네브시의 정치와 경제, 사회, 및 종교의 구조적 변화들을 실례로 들면서 켈빈의 쥬네브共和國建設을 革命으로 해석하고 있다(p. 173). 이것은 이제까지 18세기어나 사용했던 革命에 관한 새로운 입장으로 켈빈주의에 관한 새로운 해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革命과 같은 개념은 社會科學者들의 研究와 併行하여 신중하게 취급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洪教授는 세 가지의 논문들을 附錄으로 첨가시키고 있다. 첫번째 논문(“宗教改革과 獨逸의 帝國都市”)에서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독일 帝國都市들의 構造와 性格 究明을 통한 宗教改革의 새로운 接近方法이 소개되고 있다. 이것은 종래 유럽의 思想史의 接近에서 탈피하려는 새로운 社會構造史的方法으로 Bernd Möller 教授의 노선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의 논문(“宗教改革의 歷史

的 諸解釋과 敘述에 관하여”)은 종교개혁에 관한 학자들의 研究動向들을 16세기로부터 20세기, 최근의 동향까지 포함한 研究史로서 종교개혁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읽어두어야 할 내용이라 사료된다. 이 논문은 실제로 이 책의 앞에 先位되어야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번째의 논문(“再洗禮派의 概念에 대한 歷史的 解釋”)에서는 再洗禮派에 관한 新舊敎史家, 敎會史家, 및 社會學者의 해석들이 분류 논술되고 있다. 評者는 이 논문에서 敎會(Church)와 分派(Sects)에 관한 Tröltzsch의 명쾌한 분석이라든지(pp. 240-2), 개혁 당시의 分派를 左翼運動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특징을 세 가지(倫理的, 原始基督敎的, 終末論的 性格 등)로 나누어 설명한 Bainton 교수의 논술(pp. 242-5)에 개명된 바 적지 않았음을 밝히고 싶다.

이제까지 우리는 洪致模 교수의 저서를 두루 살펴 보았다. 논문들의 내용이 다소간 중복되는 바도 없지 않지만 한 가지 테마(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접근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형편이라 간주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보기」(색인)를 갖추었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宗教에 대한 知識이 앞서야 되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거의 황무지라 할만큼 종교개혁에 관한 관심이 희박했던 시절(1960년대)부터 곳곳하게 오로지 한 분야를 지켜온 著者에게 本書의 刊行을 진심으로 경하한다. 본서는 歷史學 뿐 아니라 宗教, 社會科學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리

라 믿는다. 끝으로 본서를 계기로 이분야에 대한 深層的 研究가 계속 이어지기

를 바라는 마음 적지 않다.

(建國大 文科大 副教授 林熙完)